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 -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10/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24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딤후 1:3-6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5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빛나감으로써 헛된 이야기에 빠져

엡 1:9-10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 3:9-10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자가 있다고 하자.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상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상자'로서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자의 내용물인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고 그것의 가치도 모른다. 그들은 심지어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합당하게 감상하는 이들을 비난한다.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계시이다. 이러한 요점을 주의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주 실지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허한 책이 된다.(사무엘상 4:1-10, 31 장, 23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자신께서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 되셨고, 이분은 그분의 형제들인 많은 하나님-사람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이셨다(롬 8:29).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약 육십구 년이 지났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부담이자 유일한 메시지이다.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며, 그 한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이 연합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7 권,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2 장, 36 쪽)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빈 그릇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그릇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시기 전에 사람은 더럽혀지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수단일 뿐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창조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어,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활을 사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 오셨고, 그분 자신을 '인화(人化)'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신화(神化)'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고 한 생활을 공유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심으로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거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집과 가족이 되지만, 그분의 주권이나 위격을 공유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요 1:12-13).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이 '인화(人化)' 되시고 우리가 '신화(神化)' 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내는 것이다.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보충하는 말씀(1), 70-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 25, 30-31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8 권,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1-3 장

10/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갈 5:25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행 16:7

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요 1:14, 29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요 3:14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행 2:36

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행 5:31

31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 13:33

3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벧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히 4:14

14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시인한 것을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인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나서는 결코 움직이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신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움직이셨고, 사람을 얻으셨으며, 사람이 되셨다(마 1:21-23, 요 1:1, 14). ... 그분은 하나님-사람으로서 움직이셨다.

초기 교부들 중 하나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 그분의 영계 참여하는 우리가 신화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을 신화하려는 것,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욥기 라이프 스타디, 24 장, 144-14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셨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후 오순절 날에 그분은 한 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확장되고 확대되셨다(행 2:41). 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신성한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였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단지 갈릴리의 어부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행 4: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16 절).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스러운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 세상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만을 알 뿐, 우리에게 신성한 부분도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 신성한 부분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련되어 있다. 이 신성한 부분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 곧 완결되신 영이다.

우리는 단지 그 영 '과(with)'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와(and)'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6 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움직임을 통해 예시된다. 성령께서 그들이 왼편으로 가서 아시아로 향하는 것을 막으셨고(행 16:6),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다(7 절).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직진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켰다. 그런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의 이상을 보았고, 그 이상을 고려해 본 후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고 결론을 내렸다(행 16:10).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는 놀라운 그림이다.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떠나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고, 어떤 상황도 대하지 말며, 어떤 필요도 채우지 말아야 한다. ...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영의 움직임이라는 확신이 생기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한 분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또 다른 한 분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이런 생활이 교회의 구성 요소이다. 이런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나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움직임 안에 그 영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으로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은 ...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이 둘은 하나 되어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그 영과 ‘함께(with)’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와(and)’ 그 영께서 하나가 되어 말해야 함을 가리킨다. 이것이 사실이 된다면, 우리의 말은 살아 있고 총격력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길은 우리가 그 영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고 그 영께서 우리의 움직임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다.(욥기 라이프 스타디, 24 장, 145-1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욥기 라이프 스타디, 22, 24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12 장;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 2 장

10/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벤전 1:13-18

13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14 순종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전에 무지하였을 때 따르던 욕망을 본받아 살지 말고,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18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두 가지 표현, 곧 ‘아들의 자격을 얻어’와 ‘거룩하게 되도록’을 함께 둘 필요가 있다(엡 1:4-5). 이것은 ... 거룩하게 하심이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이르도록(unto)’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 ‘어떤 결과를 낳다’를 의미한다. 거룩하게 됨은 아들의 자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 ...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죄 없는 완전함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우리의 위치를 바꾸기 위한 것만도 아니다. 그것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며, 아들의 자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영 자신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일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다. (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2 장, 41-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믿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는 것에서의 아버지의 분배는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산출한다. 다시 말하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처럼 거룩하게 하시어, 유일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심으로 아들의 자격을 산출한다. 이것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것이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이러한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롬 15:16)에 의해 수행된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갈 4:6)이신 거듭나게 하시는 영에 의해 성취된다.

거룩하게 하심과 아들의 자격은 모두 항상 그 영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서 1 장 3 절에서 이것을 영적인 축복, 그 영에 의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하며,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존재하기를 배워야 한다(롬 8:4). 우리가 그영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영을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신성한 생명이 자라도록 준비된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양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양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며, 셋째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양공급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그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 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두고, 온종일 그영을 따라 행하고 행동하며 움직여야 한다. ... 많은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자유롭고 제한이 없다. ...

우리는 무엇이든 자신의 취향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말함으로써 규제받고 교정받고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록 우리를 낳으시는 분도 그 영이시다(요 3:6).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여러 해 동안 아무 성장도 없이 지내고 있는 많은 귀한 성도들을 볼 때 염려가 된다. 비록 그들은 집회하고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지만, 그 영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할 때 그 영께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자유롭게 한담하며 다른 이들을 비판한다. 비록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회복을 사랑하고 교회생활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영께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영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완전히 관련되신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롬 8:16, 고전 6:17). 만일 우리에게 그 영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1 장, 29-30, 33-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역대상·하 라이프 스타디, 2, 4, 7*

10/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 17:16-19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2, 30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전 6:11

11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벧전 1:2

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의도이며, 하나님은 이 의도를 목적으로 삼으셨다. ... 거룩하게 하심은 ...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다. ...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류라는 '큰 바다' 안에 있었지만, 거룩하게 함이라는 이 줄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줄에 달린 낚시바늘에 걸렸다. 우리가 이 줄에 걸린 것은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완결될 것이다. ...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 주었을 때 ... 우리는 그 낚시바늘에 걸렸다. 우리는 가책 받고 회개하고 믿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붙잡아주는 노선 위에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영, 12 장, 153-154, 156-15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하심까지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붙잡아준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새롭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을 거쳐 우리 몸의 구속(엡 1:14, 4:30)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이르기까지(unto)'는 '어떤 결과를 낳다'를 의미한다. 우리 몸의 구속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완결이다.

그러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이 없고 신격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표는 우리를 아들화하는 것, 즉 그분의 표현을 위해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는 것이다. ... 거듭난 후에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그때, 우리의 혼은 완전히 아들화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약함과 질병과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결국 이러한 몸조차 변형될 것이다. 즉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에 경륜을 세우셨는데, 이 경륜 안에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로 결정하셨다. ... 우리는 아담과 죄와 죽음 안에서 잃어버려졌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 가득한 봉괴의 무더기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으셨고, 결국 찾아내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를 가책받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의 영을 분발시켜 회개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초기의 거룩하게 하심이었다(눅 15:8-10). 이 찾는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한다(눅 15:17-21).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히 13:12),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의 시작이다(고후 5:17). ...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즉 새롭게 하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요 1:12-13).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혼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한다(롬 12:2 하, 엡 4:23).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뿐 아니라, 매시간 심지어 매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환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최상의 도구이다. 그분은 항상 신성한 요소로 우리를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 곧 매일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여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한 부분인 새로운 조성체가 되게 한다(고전 3:12).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12 장, 157-16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7 장

10/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5:26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출 17:6

6 이제 내가 거기 호렘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출 30:17-21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너는 또한 씻는 데 쓸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20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곧 여호와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도

21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씨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엡 5:26).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출 17:6, 고전 10:4, 요 7:38-39, 계 21:6, 22:1, 17). 여기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씻는 것과는

다르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내지만(요일 1:7, 계 7:14),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엡 5:27)인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 낸다.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히 13:12), 그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흠들을 씻어 내신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4 장, 49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다.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타고난 생명을 비롯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점과 주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씻는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된다(출 38:8, 40:7).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이 헬라어 단어는 <칠십인역 성경>에서 ‘물두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어 냈다(출 30:18-21). 이제 씻는 물은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씻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두멍이다. 구약에 따르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제단 위의 피로 자신들의 죄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또한 물두멍에서 씻음으로 자신들의 더러움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여기에서 바울의 사상은 교회가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에 의해 씻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물두멍이 있다!

제사장들에게는 단지 예표에 불과한, 놋으로 만든 물질적인 물두멍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물두멍,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이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제단에 간 다음 물두멍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구속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 먼저 십자가로 간 다음 깨끗이 씻어지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간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을 접촉함으로 쌓인 더러운 것들에서 깨끗이 씻어지게 된다.

말씀의 물두멍 안에는 물이 있다. ... 여기에서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목마름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의 물이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 낸다.

하루는 니 형제님이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어떤 자매가 자신의 기억력이 형편없어서 말씀에서 읽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했다. 그 자매는 니형제님에게 자신이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를 물었다.

니 형제님은 중국 여인들이 버드 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쌀을 씻는 방법에 관해 말했다. 그들은 그 바구니를 여러 차례 물속에 담갔다 꺼냈다 한다. ... 비록 그 바구니는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바구니와 쌀은 둘 다 씻어진다. 그런 다음 니형제님은 이 예시를 성경 읽기에 적용했다. 비록 읽은 후에 우리의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말씀에 의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된다. 이제 용기를 얻어 말씀 앞에 나와 거둬들여 씻음을 받자. 우리의 바구니를 말씀의 물에 넣었다 꺼냈다 하자. 물이 바구니를 통과하여 흘러 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4 장, 498-5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5 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함은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임, 3 장*

10/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3:21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와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눅 10:39

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히 3:7-11

7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그분을 노여우시게 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9 거기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고,
사십 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10 그래서 나는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빛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1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 95:7-8

7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풀밭의
백성, 그분 손의 양 떼일세.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 므리바에서처럼, 광야 맞사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고전 15:45).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 주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logos)’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rhema)’를 가리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상들은 말을 못 하지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사람은 누구도 잠잠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를 강권하시어 말하도록 만드실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5 장, 5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영께서 우리를 씻는 물이시다. ...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함을 체험할 것이다.

이 깨끗하게 함은 낡은 것을 제거하고 새것으로
대치하는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이다. ...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참되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신진대사적인 깨끗하게 함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깨끗하게 함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생활 안에서 외적인 교정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방식은
우리를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시고 그 다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이 새 요소를
우리안으로 넣어 돕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이 참된 생명의 바뀔을 일으킨다. 이러한
바뀔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변화이다. 외적인
교정은 가치가 없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씻음이며, 이것은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5 장, 507-508 쪽)

씻는 물이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부분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 거룩하게 함은
오직 깨끗하게 함 다음에 올 수 있으며, 깨끗하게
함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하심 곧 ‘레마’이다. 만일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길이 전혀 없다. ... 많은 어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는 ...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단지 외적인 것만 있고 내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온전한 근거는 주님의
말씀하심에 달려 있다. 교회의 성장 역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를 수 있다.

참된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레마’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망하신다. ...성경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손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건축이 영적인가 아닌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에 달려 있다. 지식과 교리는 둘 다 영적인 유용성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다. (워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87-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성경의 기본 계시, 11 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54-5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8 권,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2 장

찬송: 1135 (英) 주님만 더하사 거룩게 하소서 (中:838)

1 주님만 더하여 거룩게 하소서
우리 속 주 인격 더 확장되소서
이 실재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건축하소서
주님 거룩-게 하소서 우리를 이 순간에도
주만이 거룩게 하시는 길이니 우릴 거룩게 하소서.

2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사신 말씀으로 순수케 하소서
우리 속 각 부분 다 씻어 내소서 그 말씀
더하심으로
주님 정결-게 하소서 우리를 이 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옛 성분 다 씻고 영광스러운 몸
되도록.

3 참 양식된 주님 먹고 마시오니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소서
주님 자신 먹고 만족함 누리니 주님 더 번케
하소서

주님 자라-게 하소서 우리를 이 순간에도
우릴 채우소서 만족케 하소서 속히 자라게 하소서.

4 우리를 먹이며 보살피 주소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소서
딱딱한 우리를 다정히 품어서 부드럽게 해 주소서
주님 더욱- 품으소서 냉랭함 사라지도록
주님께 가까이 더 끌어 주소서 따뜻이 품어
주소서.

5 주께서 내적인 모든 일 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해
주님이 갈망한 신부를 얻도록 오 주님 일하옵소서
주님 더욱- 일하소서 교회를 건축하도록
주님을 확산해 지체들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소서.

10/29 주일

아침의 누림

계 21:2-3, 9-10, 12, 14, 2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9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2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4 그 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는데,
기초들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22:3-6

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 주님,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1 단계-순차적 연구

로마서 10:4-21;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52-
53 장

2 단계-주제별 연구

The Living Out of the Body Life

Scripture: 로마서 12:9-13:14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Romans,
msgs. 27, 59

Supplemental Reading: None

Hymn: 911

churchinnyc.org/bible-study